

2024년 03월 31일 14주간
부활주일

제24-14호
목장성경공부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성현교회)
☎ 02 2613-2080 . 2683-2080
FAX 02 2689-1230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부활주일	부활의 생명
성경말씀	요한복음 11장 17~26절(신약p.166)
암송구절	요한복음 11장 25~26절(신약p.166)
찬 송	찬송가 154(통139)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본 문 이 해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은 천사, 영생, 부활 등을 부정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나сар가 다시 살아난 것은 소생입니다. 그는 현재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믿는 자는 죄로 죽었던 영혼(엡2:1)이 새 생명을 얻고 영생할 뿐만 아니라(롬6:23) 육체의 죽음 이후 흠으로 돌아갔다가 예수님 재림의 날 썩지 않고 영원히 빛나는 부활체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고전15:51~52).

말씀 속으로

1.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은 후에 도착하신 예수님을 보며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1절

–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죽지 않을 수 있었다고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보충설명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고 나흘이 지나 도착한 예수님을 뵈고 야속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치유자로 믿었지만, 부활이요 생명이신 구주로는 미처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을 통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2.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란 말씀에 마르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요한복음 11장 24절

-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 마지막 부활의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보충설명

마르다는 예수님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자기도 종말의 날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장 나사로를 살려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것입니다. 마르다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시체가 살아나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는 비로소 예수님이 단순히 치유자를 넘어 생명과 부활의 주님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온전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3.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요한복음 11장 25~26절

-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 믿는 자는 그 영혼이 새 생명을 얻고, 장차 그 육체도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보충설명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부활하심으로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죽었던 영혼이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엡2:1, 롬6:23). 육체가 비록 죽음을 경험해도 마지막 재림의 날 영원히 썩지 않고 빛나는 부활체로 변화될 것입니다(고전15:51~52).

묵상 이야기

김소엽 시인은 남편과 사별하고 이런 시를 썼습니다.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 죽음은 영원한 쉼표 ... 이제 내게 남겨진 일이란 / 부끄러움 없이 당신을 해후할 / 느낌표만 남았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확신과 소망입니다. 어느 여성도는 남편과 사별하고 주위에서 재혼하라고 권유하자, 자기는 새신랑이 있으니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33세이시니 새신랑이라며 웃음으로 응대한 위트였지만 천국과 부활을 확신했기에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눔

- 일상에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지 고백해 봅시다.

기도

- 고난과 죽음이 닥쳐도 부활의 주님을 믿고 승리하게 하소서.

적용

- 가족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자를 부활의 복음으로 위로합시다.